

지역 메아리



전주부빔은, 소양면에 이불 전달

전주부빔은(대표 양비)과 덕이와 식이의 음악세상이 이웃돕기 일환으로 이불 40채를 완주 소양면에 전달했다.

지난 15일 소양면은 부빔은과 덕이와 식이의 음악세상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이불 40채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부빔은과 덕이와 식이의 음악세상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나눔 자선공연 등 이웃돕기에 앞장섰다.

정재운 소양면장은 "이번 후원으로 지역의 이웃들이 추운겨울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교월동복지센터, 성금 모금운동 전개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환)는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복지가족들의 사랑의 손길이 이어져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백미기부를 실천한 교월동새마을지도자회 이창래 회장은 지인들과 힘을 합쳐 총 백미 10kg 100포를 지난 15일 교월동에 기탁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일을 내일처럼 숭신수범하는 신월마을 나종철 통장은 품과 마음이 유난히 추운 이때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백미 10kg 30포를 기탁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경로당에 난방비 전달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전영길)는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 및 고령농업인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난방비 6백만원을 전달하였다.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류상품권으로 전달된 난방비는 각 기관에서 총 60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영길 지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공동체간 협력 · 네트워크 강화

## 완주공동체 누리살이 한마당 행사... 올해 성과공유 · 내년 정책방향 공유

완주군 공동체사업의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는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지난 15일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완주군지역경제추진센터에서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 완주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완주공동체 누리살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완주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이근석)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우수공동체 성공사례 발표와 성과에 대한

시상식 및 2018년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는 축하의 장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상에서는 수익이나 매출규모 같은 계량적 결과보다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에 충실해 지속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 활동을 우선시했다.

이에 따라 용진 도계마을과 지역공동체 완두봉은 '광복상대상'을 새내기 공동체 가우리에게는 '아장아장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1년 동안 모범적인 활동을 보인 사무장에게 주는 '선녀와 나무꾼' 상에는 용진 도계마을의

심영산 사무장과 최운성 관역사무장이 각각 수상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공동체간의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고 공동체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영역을 아우르는 완주공동체지원센터의 2018년 비전도 제시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공동체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체간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김제 종자산업 발전방안 논의

## 시, 간담회서 신규사업 발굴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을 위한 김제 공항부지 활용방안 모색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종자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지난 15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전문가와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기업 대표 및 임직원, 그리고 이후천 김제시장권한대행 등 30여명이 모여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열린 논의를 가졌다.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열린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는 전시포를 비롯한 볼거리가 많았지만 상징성있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한계도 드러내며 이어 지속 가능하고 종자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천 김제시장은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을 위한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 모색 · 신규사업 발굴 등 종자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지난 15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권한대행은 "종자산업분야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지역공약사업에 반영되어있으며,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농생명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에도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한 종

자사업 지원이 들어있는 등 종자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인 만큼 공공성이 좋은 사업 아이템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 우수기관 선정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완, 이하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종합점수 95점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는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보조사업을 운영 중인 전국 352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 운영

실태 등 활동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3년마다 진행되며 평가 첫 해 최우수(종합점수 90점) 및 이용자 만족도 100%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종합점수 95점(전국평균85점)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강정완 관장은 "그동안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보조인의 근무여건 등을 살피고

로써 종합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따뜻한 동반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청소년의회 첫 본회의 열어

## 완주군, 마을버스 노선 확대 등 7개 안건 가결

이동전화도시 완주군이 아동들의 정치참여권을 위해 출범시킨 청소년의회가 본회의를 개최, 마을버스 노선 확대 등 7개 안건을 가결시켰다.

지난 15일 완주군은 지난 14일 봉송회 의정(봉서중·3)의 개최선언을 시작으로 완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 완주군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은 ▲마을버스 노선 확대 ▲친구들을 돕고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또래 무명상담소 설치 ▲청소년 실공간 설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지원 ▲안전한 통학권확보를 위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점검 ▲완주군 사업들의 정보공개현상 방식을 위한 청소년활동 홍보단 운영 등 7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완주군 청소년의원들은 지난 10월부터 5차례 임시회를 열어 15개 정책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토론

회 등 절차를 거쳐 7가지 안건을 최종 상정했으며, 참석의원 20명의 의결로 가결됐다.

이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을 위해 지역인재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청소년활동 홍보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나 사업을 청소년들이 직접 홍보 효과를 높이지는 안건이다.

완주군은 가결된 안건들을 검토해 시행 가능한 정책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3분 발언에서는 박수홍의원(화산중1)이 '약기연주가 가능한 청소년들이 단원이 돼 다문화 어린이들의 약기연습을 도와주는 '대인보유 햄버거케스트라' 창단 및 활동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청소년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 전북공무원기술사회, 사랑의 연탄 나눔 실시

전북공무원기술사회(회장 이승복, 전북도 안전정책관)는 연탄을 맞이한 16일 김제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연탄을 전달함으로써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연탄 나눔'은 전북공무원기술사회에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이어오는 봉사활동으로, 매년 연말을 즈음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에게 회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성금으로 구입한 연탄을 방문 배달하여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랑실현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2016년도에 이어 김제시 주민복지과(과장 서상원)와 함께 김제시 관내 저소득층 3가구를 방문하여 연탄 1,000정을 전달하였다. 회원들은 어린자녀와 가족이 함께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사랑의 온기를 나눔으로써 주위를 훈훈하게 하였다.

이에 김제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는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위 속에서도 연탄을 직접 배달해준 전북공무원기술사회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